



살며 생각하며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살아 있는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이 있으며 살아 있으려면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동안은 생각하며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동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

생각에는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분류되며 오늘날 인류 문명사회를 만든 것은 긍정적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발명하고 연구하여 인류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으며, 할 수 없다고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퇴보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며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일 년 동안 살면서 생각하고 실천한 것은 글을 써 왔으며 그것을 신문에 보도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게 했고,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해 연말에 편집하여 '살며 생각하며...'의 칼럼집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그 칼럼집에 보도된 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인생 행사로 분류했으며 지난해는 200여 편의 칼럼을 썼다.

우리는 하루 생활의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날 한 일과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하루를 반성하는 저녁 시간에 쓴다. 보고 듣고 한 일은 삶이며 생각하고 느낀 것은 반성이고 다짐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토끼해인데 토끼는 동물 중 작은 동물이지만 초식동물로서 동적이 빠르고 지혜롭게 사는 동물이다.

한해의 목표가 부자와 행운의 복이라면 항상 부자가 되는 긍정적 생각을 해야 하고 행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행운의 복인 성공을 기다려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의 설계도를 배워야 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그 사람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성공을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입어 혼자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었고 성장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웃이란 형제자매며 이웃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학연으로 맺어진 선배 친구와 직업으로 일하며 맺어진 이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웃과 멀어지면 고독하고 고독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 종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웃이 많고 친구도 많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이웃과 친구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면서 사는 생각과 해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신이 나를 돕는다는 종교를 갖고 있으며 믿음의 신과 함께 사는 삶은 고독하지 않으며 믿음의 신은 나를 도와 성공의 길로 함께 해주신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사람으로 이웃을 도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실천하는 믿음 신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은 긍정적 생각과 실천을 하게 하여 나에게 풍요와 행운의 성공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한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부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살며 생각하며'가 되었으면 한다.

칼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은행 규정 확 바뀐다

기고

신용진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사



지난 해 9월경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점검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금융분야 대책을 보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방법 등 올해부터 은행 규정이 확 달라진다.

첫째,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할 시 한도가 축소(1회 100만원 → 50만원)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금액을 대포통장에 송금하기 위해 ATM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ATM 입금을 통해 송금된 자금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송금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반복적인 수취 행위가 있었지만, 수취한도 축소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도입을 추진하여 본인확인에 있어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결제·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용한도를 축소(1일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경제적살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금융분야 대책들은 대부분 올해 상·하반기 중으로 완료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은행 규정들이 많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내 주변인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것이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더 나아가셨으면 한다.

기고

지금 내가 있는 건물의 비상구는 안전합니까?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유독가스 속에서의 숨막힘은 혼자라는 고립감과 두려움으로 패닉(Panic)현상을 주어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피난구유도등과 비상구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비상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75cm×세로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다.

또한 비상구의 문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잘 당겨서 열었던 문도 패닉상태에 빠지면 평소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문을 밀고 나가려고만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상구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 화재현장은 가시거리 단축으로 앞을 보기가 더욱 힘들고, 방향감각 역시 상실하게 되어 자주 다녔던 공간도 낯선 장소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때에 피난구유도등과

비상구표시등을 발견한다면 말 그대로 '생명의 통로'를 발견한 기쁨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혹은 잠가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기껏 화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를 발견하여 탈출하려는데 문이 잠겨있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에 소방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자율안전관리를 실천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고장상태 방지 및 임의로 자동 동작을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화마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비상구 상태 확인, 소방시설 위치 파악 등 사소하지만 안전한 습관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